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23일 토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23호

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

지난 2월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아시아 행각 기간 미국 대통령 부시는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며 우리를 힘으로 압살해 보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 놓았다.

우리에 대해 험담만을 일삼아 오던 부시는 이번 행각기간에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제도의 변경에 대해 운운하고 지어는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망동까지 부렸다.

이로써 부시가 우리를 악의 축이라고 망발한 것이 그 어떤 무기 문제나 테로와의 연관성 문제가 아니라 국제 여론도 평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질상 우리 최고수뇌부와 우리 제도에 대한 부시의 체질적인 거부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물론 지금 부시에 대한 전세계적인 평가를 염두에 둘 때 그의 망발을 놓고 심중히 논의할 가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함부로 건드리고 우리 제도를 헐뜯은데 대해서는 그가 설사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이성마저 잃은 사람이든 정치적 미숙아이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더우기 부시의 이번 망동에는 비록 어리석긴 하지만 우리 최고수뇌부와 인민대중을 갈라 놓아 보려는 제 나름의 타산이 엿보이고 있다.

힘과 딸라로 남의 나라 정부를 전복하는데 환장이 된 나머지 이제는 바위를 흙무지로 알고 접어드는 격이다.

우리 나라의 정치체제를 유권자의 절반도 못되는 지지표를 가지고도 대통령 감투를 가로챌 수 있는 미국의 체제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부시의 타산이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

우리의 제도는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의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이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되여 있고 인민대중이 참다운 정치적 자유를 누리며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제도의 독특한 본질에 대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체제에 대한 부시의 망발은 그 체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와의 대화 부정 선언이나 같다. 부시가 줴치기 좋아하는 대량살륙무기요 기아요 하는 문제들도 다 다름아닌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며 반세기 이상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봉쇄해 온 결과로 산생된 문제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흑백을 전도하다 못해 이제 와서는 우리에게 제도 변경까지 강박하려 드는 것은 그들이 떠드는 대화 타령의 진속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드러내놓은 것으로 본다.

우리 역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힘으로 변경시켜 보려고 망상하고 있는 부시 패거리와는 상종할 생각이 없다. 미국이 우리 제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침공의 구실만을 찾기 위해 제창하고 있는 그런 대화는 필요없다.

다시 한번 명백히 말하건대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자들은 바로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있는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고귀한 인민적 제도를 힘과 강권으로 어째 보려는 자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켜 저들의 울타리안에 끌어 넣으려는 자들과는 우리 식대로 끝까지 강경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단 우리를 건드리는 경우에는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릴 것이다.

주체 91(2002)년 2월 22일

≪새해맞이 남북모임≫ 선발대 방북

오는 26~28일 금강산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민간 차원의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 준비를 위한 남쪽 선발대(단장 조성우 민화협 집행위원장) 8명이 22일 금강산관광선 설봉호편으로 떠났다.

이에 따라 새해맞이 공동행사는 남북 민간단체의 합의대로 26~28일 금강산려관에서 열리게 됐다.

담화

1 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
1 ≪새해맞이 남북모임≫ 선발대 방북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2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1)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

세기와 더불어

4 3장 3절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1)

칭송

6 환호성
6 김정일동지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7 ≪조선일보≫ 또 빨간모자?
7 신문 아닌 신문 ≪조선일보≫는 즉각 폐간돼야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21일
8 배격받는 부시의 ≪악의 축≫망언

광고

15 6.15주간 35호

조국통일3대헌장

16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 방식에 관한 논의

조선중앙통신

9 주체 91, 2월 21일
10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 (1)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1 6.15북남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거는 미 호전분자들이 책동과 그 정체

아리랑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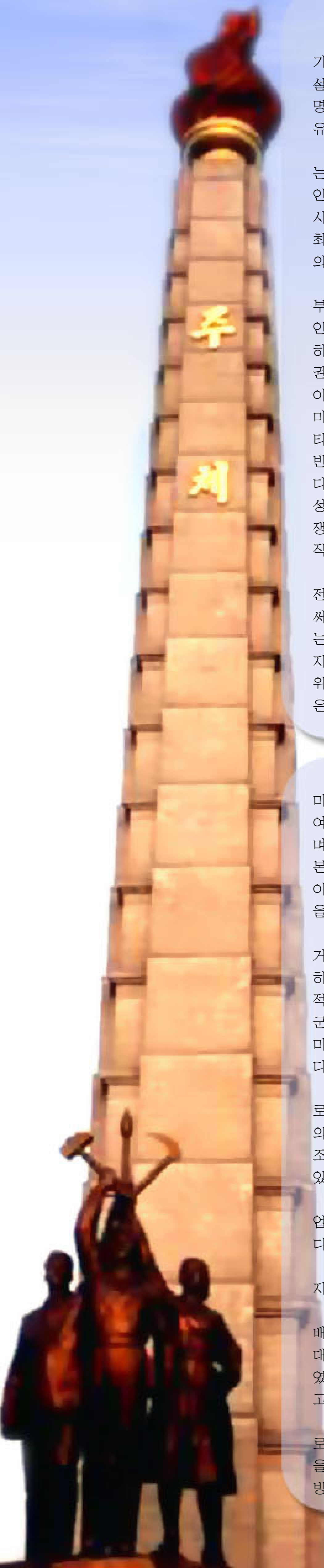
12 부시, 역사상 가장 환영받지 못한 방한
12 반미감정 최고조로 끓어오르다
13 경찰 폭력진압에 시민단체 집단 고소
13 미, 한국 대학생 ≪테러리스트≫ 간주
13 ≪새해맞이 남북모임≫ 선발대 방북
13 신군부, 녹화사업 집권전 계획
14 당과 민주노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4 이자제한법 부활 민생국회 촉구 집회
14 계획

운동강좌

15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6)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1)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 / 1961년 9월



동지들!

총결기간에 남조선 정세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북조선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성과는 조선에서의 혁명과 반혁명과의 력량 관계를 혁명력량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켰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세력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인민대중으로부터 고립된 반혁명세력이 군사테로의 모험적 수단에서 출로를 찾으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남조선에서의 정세발전의 주요 추세입니다.

작년 봄에 미제국주의 식민지 제도 하에서 부패와 학정을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남조선 인민들은 드디여 새 정치와 새 생활을 요구하여 영웅적 항쟁에 궐기함으로써 리승만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구국투쟁에서 달성한 거대한 승리였으며 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정책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였습니다. 4월 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습니다. 항쟁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은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항쟁을 계기로 투쟁의 예봉은 점차 미제국주의에 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조선에서의 인민 봉기와 그 후의 사태 발전은 미제국주의가 어떠한 류혈적 탄압으로써도 결코 남조선인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장면정권의 마지막 시기에 남조선에서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는 극도로 첨예화 되였습니다. 인민생활은 참을 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 갔으며 부화적 통일을 달성하지 않고는 빈궁과 무권리, 식민지적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으며 남북 교류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요구하며 남북협상을 요구하는 군중적 투쟁이 힘있게 발전하였습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이 남북회담과 교류를 제의하여 나섰으며 광대한 인민대중이 이에 호응하여 일어났습니다. 대세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인민대중에게 급속히 유리하게 진전하였습니다.

궁지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반동은 파국에 처한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하여 보려고 파쑈적 군사독재를 수립하는 모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남조선에서의 군사독재 정권의 수립은 조선에서 미제의 지위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화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그것은 죽음에 림박한 자들의 절망적인 발악에 불과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남조선의 식민지 제도를 결코 구출할 수 없습니다. 파쑈적 군사통치는 도리여 인민들의 투쟁을 가일층 격화시킬 것이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의 종국적 붕괴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남조선은 일체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말살된 암흑의 천지로, 대중적 테로와 학살이 감행되고 있는 인민의 도살장으로 전변되였습니다. 남조선 군사 정권은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해체시켰으며 진보적 언론, 출판 기관들을 모조리 폐쇄하였으며 벌써 10만여 명에 달하는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습니다.

남조선에서 정치적 혼란과 불안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군사집단의 내부모순과 갈등이 극도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남조선경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대중적 기아가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한 결코 달리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의 군사통치배들이 ≪개혁≫이니, ≪자립적 경제건설≫이니, ≪민생의 구출≫이니 하는 말들을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하여 파쑈적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조선의 사태발전은 그들의 이와 같은 구호들이 허공에 뜬 공담이라는 것을 더욱더 폭로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습니다. 미제국주의 식민지통치가 철폐되지 않는 한 그 누가 정권 기관에 들어앉든지 간에 남조선정권이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권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처지에도 개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 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군사적 목적에 복종시켰으며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완전히 폐쇄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부속물로 전락한 남조선 경제는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 처하여 있습니다.

남조선공업은 파산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의 압박으로 인하여 민족공업은 더욱더 령세화되어 가고 있으며 부단히 파산 몰락하고 있습니다. 민족자본가들의 경리는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체들이며 지금 그 80% 이상이 휴업하거나 조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 약간 있다고 하는 경공업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기자재와 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주요 부문은 현지에서 보충적으로 미국고용군대에 군수품을 조달하는 군수공업입니다. 이러한 군수 공업의 주인은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예속자본가들입니다.

남조선시장은 바다를 건너 온 미국상품으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남조선 수출 총액의 20배에 달하는 수입 총액 중에서 미국 ≪원조≫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여전히 자립적 공업이 없는 락후한 농업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업의 파산과 함께 남조선 농촌경리도 여지없이 파괴되였습니다.

농촌에서는 여전히 봉건적 지주제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분여지≫는 그 대부분이 다시 지주, 부농의 수중에 집중되였으며, 농민들은 가혹한 봉건적 착취를 받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지주들의 략탈과 착취로 인하여 남조선농업은 그 발전이 정체되였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황폐화되였습니다. 해방 전에 비하여 경지면적은 20만 정보가 축소되였으며 파종면적은 40만 정보나 축소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침략군대는 남조선 농민들로부터 10만 정보 이상의 토지를 군용지로서 강탈하였습니다. 공업이 파산되고 농촌경리가 극도로 령세한 조건에서 농업기술은 말할 수 없이 락후한 형편에 처하여 있습니다.

농업 생산력의 파괴와 침체는 생산의 심한 쇠퇴를 가져 왔습니다. 1960년에 알곡생산량은 해방 전 1937년에 비하여 3분의 2로 감소되였습니다.

경제의 파산,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는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남조선의 로동능력 있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600만 이상의 근로자들이 만성적인 실업 및 반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남조선 정권은 해마다 예산의 70% 이상을 군사비의 지출에 충당하고 있으며 그것을 짜내기 위하여 조세 수탈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비의 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의 격화는 근로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1961년 7월 현재로 1949년에 비하여 통화량은 206배로 불었으며 물가는 126배로 올랐습니다. 전후 7년 동안에 남조선인민들의 조세 부담은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로동자들은 하루에 10~18시간의 고역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임금은 최저 생활비의 3분의 1도 못됩니다. 광범한 농민대중은 지주와 고리대의 채무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전후 기간에 농민들의 부채액은 20배로 격증하였습니다. 매년 수만 호의 농가가 파산하여 리농하고 있으며 공업이 령락한 농촌 인구를 흡수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들의 대부분은 류리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16년간에 걸친 통치의 결과이며 미국 ≪원조≫가 남조선에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미국군대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기본적 장애이며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었으며 조선에서의 평화를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온갖 책동을 다하여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남조선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속에 몰아 넣었으며 남조선 천지를 테로와 폭압의 생지옥으로 전변시켰습니다. 미국 강도들의 만행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무수한 애국적인 인민들과 무고한 겨레들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우리의 자매들이 모욕당하고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한다는 구실 밑에 전쟁 준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동족 상잔에로 내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남조선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입니다. 미국 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조선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나라의 평화적

미제국주의는 남조선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입니다. 미국 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조선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은 기대할 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기대할 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적 관료배들에 의거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제국주의침략의 안내자로, 그의 충실한 동맹자로 되고 있습니다. 지주계급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비호 밑에 농민대중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억압하고 있습니다. 예속자본가들은 미국의 상품과 자본을 끌어들이며 우리 나라의 자원을 략탈하여 자기들의 상전에 팔아넘기며 미국고용군대에 군수품을 조달함으로써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의 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요구는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구축하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동지들!

남조선인민들이 반제반봉건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이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는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당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이 없이는 인민대중에게 명확한 투쟁강령을 줄 수 없으며, 혁명 군중을 굳게 결속할 수 없으며, 군중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없습니다.

혁명적 당이 없었고 명확한 투쟁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이 항쟁에 광범히 참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4월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미제의 다른 주구들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혁명적 당의 령도가 없었으며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의 각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군부상층의 파쑈분자들에 의한 권력탈취를 막지 못하였으며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적들의 공격을 반대하여 효과적인 반격을 조직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쓰라린 경험에서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광범한 군중 속에 깊이 뿌리 박은 로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가져야 하며, 그 합법적 지위를 쟁취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조직되여야 할 근로인민의 정당은 모든 애국적 력량을 단결시킴으로써 철저한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가장 선차적인 과업은 미제국주의의 남조선 강점을 반대하며 미국 침략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공산주의 침략≫을 막는다는 구실 밑에 우리 동포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은 결코 동족상잔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사상과 정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지장으로 될 수 없으며 더우기 전쟁의 원인으로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침략≫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말이며 그들의 남조선강점과 전조선침략기도를 은폐하고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간판에 불과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준비 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한 전인민적 항쟁에 궐기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강제징집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로동자들은 태업과 파업을 조직하여 적들과 군수생산과 군수물자수송을 방해하며 전체 남조선인민들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의 동포들을 학살하며 략탈하며 모욕하는 미국군대의 강도행위를 결정적으로 규탄하고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미국침략군대에 대한 일체 협력을 단호히 거부하며 그들에게 쌀 한 알, 물 한 방울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침략자들로 하여금 격분한 인민들의 항쟁 앞에서 공포에 떨게 하며 그들이 우리 땅에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국침략군대를 하루속히 철거하여야 하며 남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일체 예속적인 군사, 경제적 조약들을 철폐하여야 하며 미국의 식민지적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이 단결하여 결정적인 반미투쟁에 궐기할 때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강토에 배겨내지 못할 것이며 남조선에서 쫓겨나고야 말것입니다.

(내일 계속됩니다)

정치사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 엎고 민족적해방을 이룩하며 봉건적착취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회혁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발전이 극도로 억제되고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현 단계에 있어서의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 엎고 조국을 광복하기 위한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봉건적인 제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것이다. 이 두가지 혁명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김일성저작집》 1권, 151페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혁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의 사회경제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이 나들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을 반제민족해방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적과업을 결합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것을 밝히시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기본임무는 인민대중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는것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동력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농민과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등 광범한 반제민주력량이다.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들도 이 혁명에 참가할수 있다.

이 혁명의 대상은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들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반제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하는 방도는 유격전형식의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옳게 결합하는것이다. 반제민족해방의 과업이 수행된 다음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주권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세워야 할 정권은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다. 이 정권의 본질적특징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에 의거하고 있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정권을 세운 다음 그것을 무기로 하여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된 다음에도 도시와 농촌에 자본주의적경제형태와 소상품경제형태가 남아 있게 되며 따라서 인민대중은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사회주의혁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완수되였다.

그러나 미제가 남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하고 있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봉건적 압박과 착취가 계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인민앞에는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여야 할 과업이 의연히 남아 있다.

1권 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1)

≪ㅌ,ㄷ≫성원들과 비밀독서조성원들의 활동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사상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가자 청년학생들의 사상의식에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선진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점차 력사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들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게 하였다.

우리는 청년학생들의 의식화를 위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들을 여러가지 조직에 묶어세워나갔다. 조직을 통해서만 맑스－레닌주의사상을 더 널리 보급할 수 있었고 핵심력량도 더 빨리 키워낼 수 있었다.

나의 혁명활동은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혁명활동을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그처럼 큰 의의를 부여한 것은 내가 학생의 몸이라는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로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데서 그 운동이 노는 역할과 위치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였다.

맑스－레닌주의리론에서는 청년학생운동을 교량자의 역할에 비기고 있다. 다시말하여 청년학생운동이 선진사상을 보급하고 대중을 계몽각성시켜 혁명운동에로 추동하고 안내하는 교량자적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그 리론을 긍정하였다.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청년학생들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립장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생기였다. 우리는 혁명의 동력을 로동자, 농민의 본위로만 규정하던 종전의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학생들도 혁명투쟁에서 당당한 주력을 이룬다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청년학생운동이 걸어온 로정이 립증해주고 있다.

3.1인민봉기와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사건 등 해방전 우리 나라 반일애국투쟁의 봉우리를 이루는 주요한 력사적사변들에서 청년학생들은 항상 앞장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다. 우리는 공산주의운동의 새 력사도 청년들의 힘으로 개척하였고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도 청년학생들을 골간으로 하여 전개하였다. 오늘도 우리 혁명에서는 청년학생들이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에서도 주력은 청년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4.19봉기의 산파도 청년학생들이었고 광주인민항쟁(1980년)의 주역도 청년학생들이었다.

중국사람들이 신민주주의운동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은 5.4운동의 최선봉에 청년학생들이 서있었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알고 있은 사실이다.

인류가 아직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해치며 새로운 경험을 부단히 창조해온 조선인민의 풍부하고도 장구한 투쟁력사는 청년학생들을 하나의 계층으로조차 보지 않던 종전의 리론이 우리 나라의 실정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20년대 전반기까지의 우리 나라 청년학생운동에는 계급적 립장과 반제적 립장이 확고하지 못하고 대중속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는 부족점이 있었다. 운동의 상층은 대부분 인테리출신들이었으며 운동의 주력도 계몽활동에 편중되고 있었다.

우리는 청년학생운동에서 이런 부족점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첫 걸음을 잘 떼려고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막상 조직을 내오고 거기에 청년학생들을 망라시키자고 하니 복잡한 문제들에 부닥치게 되었다.

청년학생들을 조직화하는데서 우리에게 가장 큰 난관으로 제기되었던 것은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이미 만들어진 기성청년조직들이 있는 조건에서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우리의 조직을 내오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길림에는 길림청년회, 조선인려길학우회와 소년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성조직들이 있었다.

그런 조직들이 없다면 빈터우에 집을 짓는 식으로 거침없이 새 조직들을 내오겠는데 여러갈래의 기성단체들이 출현하여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하고 있은 조건에서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심중히 토의한 끝에 이미 있는 조직들가운데서 간판만 있고 활동하지 않는 조직은 무시하고 새롭게 꾸리며 미약하게나마 움직이는 조직은 그대로 두고 리용개편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길림에서 처음으로 내온 조직은 조선인길림소년회였다. 그때 길림에는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소년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뿐이고 길림시내의 조선소년들은 그런 조직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1927년 4월에 손정도네 례배당에서 조선인길림소년회라는 합법적 조직을 무었다.

나는 김원우, 박일파(박우천)와 함께 이 모임을 지도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직부와 선전부, 문체부(문화체육부)와 같은 소년회의 부서들을 내오고 학교와 지역별로 되는 반도 조직하였다.

그때의 일에 대해서는 당시 소년회 선전부 책임자로 있던 길림녀자사범학교출신의 황귀현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소년회는 로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민족주의자의 자제들을 비롯하여 길림시안의 조선인소년들을 다 망라시키었다. 조선인길림소년회의 목적은 소년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데 있었다.

조선인길림소년회는 강령에서 회원들이 새로운 선진사상을 학습하고 그것을 광범한 군중속에 널리 해설선전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해 5월에 우리는 조선인려길학우회를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개편하였다.

조선인려길학우회는 망라된 인원도 적지 않았고 일정한 정도로 영향력도 있었다.

본래 조선인려길학우회는 길림에 와서 공부하는 조선인청년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민족주의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려길학우회의 고문들가운데는 손정도도 있었다.

우리가 려길학우회를 류길학우회로 개편하려고 하자 어떤 동무들은 조선인려길학우회가 민족주의자들이 주관하는 순수한 친목단체라는 것을 문제시하면서 그것을 밀어치워버리자고 하였다. 본바탕이 민족주의이면 거기에 아무리 이질적인 것이 량적으로 많이 첨가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민족주의화된다는 것이였다. 그 주장의 본질은 낡은 사조로서의 민족주의를 타도하자는데 있었다.

당시는 대중을 끄는데서 경쟁이 심했다.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대치되어 승벽내기로 군중을 끄는가 하면 같은 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도 파벌별로 저마끔씩 대중을 끌어당기느라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오늘 서울파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지도부를 장악하면 래일은 화요파가 그에 대항하여 한양청년회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모레 화요파가 조선로농총동맹을 만들어내면 이번에는 반대로 서울파가 거기에 맞서서 경성로농회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풍으로 되고 있었다. 종파분자들은 심지어 다른 파들을 견제하기 위한 테로단도 경쟁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우리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전철을 밟을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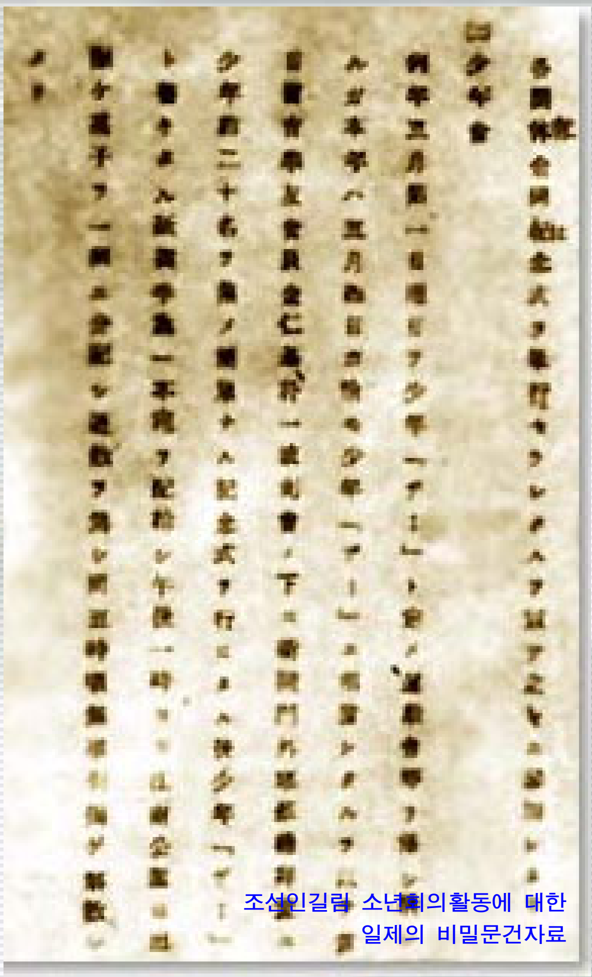
우리가 만일 종파분자들이 하는 식으로 조선인려길학우회를 무시하고 길림에 새로운 청년조직을 또 내온다면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수 있었으며 학생청년들의 대렬을 분렬시킬수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백해무익한 일이었다.

우리는 조선인려길학우회속에 들어가 본래의 합법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점차 그 조직을 순수한 친목단체로부터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자고 하였다. 공산주의자인 내가 명예회장으로 되었지만 표면상으로는 민족주의자들을 끼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국군벌당국의 주의도 덜 끌었다. 나는 조선인려길학우회를 지도하면서 그것을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개편하였다.

조선인류길학우회는 겉으로는 조선인청년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표방하였지만 실지로는 ≪ㅌ,ㄷ≫의 리념을 실현하는 혁명적인 학생청년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조선인려길학우회를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개칭하고 그것을 순수한 친목단체로부터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것은 우리가 청년학생운동을 하면서 얻은 하나의 큰 경험이었다.

우리가 만든 조직들이 움직이게 되면서부터 길림시안의 풍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청소년학생들의 일과생활부터 몰라보게 변하였다. 소년회와 류길학우회에 망라된 청소년들은 아침마다 지구별로 조기회를 하였다. 일요일이 오면 길림시내 모든 회원들이 대렬을 지어 북산에도 가고 가창행진도 하였으며 북산밑에 있는 운동장에서 체육경기도 하였다.



조선인길림 소년회의활동에 대한
일제의 비밀문건자료

우리는 청소년학생들과의 사업을 하는데서 그들의 취미와 의식수준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활용하였다.

소년회에 망라된 학생들가운데는 기독교신자들의 자녀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부모들의 종교적 영향을 어떻게나 많이 받았는지 세상에 정말 ≪하느님≫이 있다고

➡

까지 생각하였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하느님≫이 없고 종교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해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날 나는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던 조선인소학교의 한 녀선생에게 부탁하여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데리고 례배를 보러 가게 하였다.

그 녀선생은 나의 말대로 학생들을 데리고 례배당에 가서 온종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아버지이시여, 배가 고픈데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십시오.≫하고 기도를 드리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떡이나 빵이 차례질리는 만무하고 배만 여전히 쪼록쪼록 고팠다. 이번에는 녀선생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을을 하고난 밀밭에 가서 이삭을 줏도록 하였다. 선생은 밭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굉장히 많은 이삭을 주어왔다. 그 이삭을 털어서 빵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학생들은 그 빵을 먹으면서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실지 로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단순한 사실 같지만 청소년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낡은 인습을 청산하는데서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였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례배보러 다니는 것을 경계하고 그들이 미신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교양한 것은 결코 종교 그 자체를 타도하자는데 있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미신에 빠지고 예수의 교리를 절대화하게 되면 혁명에 아무 쓸모도 없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신자라고 하여 혁명을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종교가 내포하고 있은 무저항주의적인 요소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약왕묘

길림에 가보니 어떤 소년회원들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이 강하였다. 그런데 찬송가나 불러가지고서는 적의 화구앞으로 돌진할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찬송가를 부르는 신도들보다도 결사전가를 부르는 투사들이 더 필요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혁명적인 노래들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였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리를 오가던 소년회원들이 얼마후부터는 ≪소년애국가≫와 ≪조선인길림소년회가≫를 부르며 버젓이 시가행진을 하였다.

조선인길림소년회와 조선인류길학우회가 나온 다음 우리가 한 활동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해 여름방학에 조직한 국어강습이다. 그 강습에는 중국인소학교에 다니는 조선소년들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다 참가시키였다. 그 소년들의 대다수는 출생지가 만주였다. 만주에서 태어난 소년들은 조선말보다 중국말을 더 잘하였다.

우리는 그때부터 ≪조선사람은 조선을 알아야 한다.≫는 구호를 내들었다.

계영춘, 김원우, 박소심이 엇바꾸어가며 강의에 출연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에게는 교원이 따로 없었다. 조직의 모든 핵심들이 다 교원이였고 강사였다.

20일동안 강습을 하고나니 여기에 참가했던 소년들이 누구나 다 어린이잡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소년회와 학우회는 청소년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룡담산원족과 강남공원야유회도 조직하고 문화유적들에 대한 참관과 답사도 조직하였으며 강연회, 토론회, 학습회, 웅변대회, 독서발표회, 노래보급, 연예공연과 같은 과외활동도 많이 조직하였다.

우리는 그때 비밀활동장소로서 강남공원과 북산을 많이 리용하였다. 강남공원은 릉라도와 같이 아름답게 생긴 송화강상의 섬이였다. 길림의 자본가들은 이곳에 나무를 많이 심어 섬을 식물원과 같이 수려하게 꾸리고 입장료까지 받아먹으면서 돈벌이를 하였다. 공지에다가는 락화생 같은 것도 재배하였다. 이 공원에서 우리가 야유회의 간판을 가진 비밀회의를 많이 하였다.

강남공원보다 더 리상적인 밀회장소는 북산이였다. 초목이 무성한 여름철을 위주로 리용하던 강남공원에 비하여 북산은 계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시장철 자유롭게 리용할 수 있었다. 길림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드는 유원지가 바로 북산이였다. 그러므로 북산과 그 주변에는 봉사망도 시적으로 제일 조밀하게 배치되어있었다. 북산으로 들어가는 거리 량옆에는 음식점, 빙탕막, 완구상, 담배상, 잡화상, 차집, 오락장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서양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큰 경광상점도 있었다. 북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은 경치가 좋은데도 있지만 거기에 약왕묘와 같은 명승고적이 많았기 때문이였다. 약왕묘라는 것은 약신의 제사를 지내는 절당이라는 뜻이다.

길림에서는 매해 6월 4일부터 6일까지의 사흘간을 묘회기간으로 정하고 성정부의 주관하에 북산에서 약신령의 탄생을 축하하는 관제행사를 벌이였다. 이 행사에는 일반서민들은 물론, 관직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다 참가하였다. 묘회기간의 3일은 휴가로 선포되였다.

경찰당국은 이 행사가 벌어질 때마다 북산아래 대도로 동쪽에 림시파출소를 내오고 전화를 가설하였으며 산우에는 경찰분반까지 배치하여 상공개의 질서를 유지하는가 하면 약왕묘, 관제묘, 랑랑묘에 피우는 향불이 산불로 번져가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하고 단속하였다. 3일간의 행사기간에는 마차부들과 인력거군들까지 평상시의 10배나 되는 돈을 벌었다.

장사아치들이 3일간의 묘회를 돈벌이의 호경기로 삼았다면 이 도시의 유지들과 선각자들은 성립통속강습소의 간판을 가지고 군중을 계몽시키는 사회교육의 연단으로 삼았다. 각이한 직업에 종사하는 계몽활동가들이 도처에 나타나 주먹을 흔들며 애국, 도덕, 법수호, 미감, 실업, 체육, 위생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열변을 토하였는데 북산이 아니고서는 어데서도 볼 수 없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였다.

이런 복잡한 틈바구니에서 우리도 군중을 찾아다니며 선진사상을 먹이고 때에 따라서는 비밀회합도 하였다. 약왕묘 지하실은 우리의 전용회의실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절의 중은 우리가 쟁취한 사람이였다.

나는 길림에서 학교를 다닐 때 강연도 많이 하였다. 어떤때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한 토론회에 가서도 연설을 하였다. 오동진, 리탁을 비롯한 정의부의 지도자들은 국치일(8월29일), 3월 1일, 단군탄생일(10월 3일)등 주요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시내 교포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모여놓고 강연회와 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였다.

류길학우회의 성원들속에서는 리준의 방법이 옳은가, 안중근의 방법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론쟁을 많이 하였다. 아무리 론쟁을 해도 결판이 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려길학우회가 류길학우회로 개편된 그해 여름에 손정도네 례배당에 시내에 있는 조선인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 문제를 토론에 붙이기까지 하였다. 그 토론회를 계기로 길림의 청소년들이 크게 각성되였다. 그들은 테로로써도 안되겠다. 청원으로써는 더구나 안되겠다. 강대국들이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조선을 독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로가 탐구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그 당시 길림에서 진행된 토론회나 독서발표회에서는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론의되였다.

우리는 매해 5월 첫주 일요일을 ≪소년회날≫로 정하고 이날에 길림시내의 조선인청소년들과 그 부형들, 유지들과 독립운동자들이 참가하는 운동회도 열어 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단결시킨 다음 그들을 대중을 교양하고 계몽시키는 사업에 참가시키였다. 열살안팎의 소년회원들까지도 방학이면 강동, 륙대문, 신안툰, 대황구와 같은 주변농촌마을들에 나가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계몽하였다.

(내일 계속됩니다)

송시

환호성

신조국

해님처럼 웃으시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
영광의 단상에 오르시는

역사의 이 순간
가없이 맑은 하늘 아래
폭풍쳐 터져오르는
민족의 환호성이여

평양성을 진감하는 환호의 함성은
분리선을 폭풍쳐 넘어
영호남의 나락을 흔들고
다도해의 대숲을 흔들며
제주도 한라를 내달아
반만년 역사국에 경사가 났다
3천리가 감격에 일어섰다

이 나라 조종의 산에서 탄생하신
백두의 장군! 그분은
세상을 이룬 민중이
세계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주체의 성화로 밝혀주신 분

모진 운명도 울며
재활의 길을 걷게 하는
뜨거운 애민애족의 열로
일심의 웅집위업을 이루어
아름다운 인간세상의 참모양을
이 땅에 그려내신 분

민중중심의 이북의 지상낙원을 없애려
포악한 제국들이
마지막 포위환을 좁히던 그 때
운명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전쟁이 앞에 왔던 그 때
순간에 수천만 심장의
총폭탄을 부어내시어
강적의 핵전쟁포탑을 꺾어버리고
백악관과 펜타건을 전율시키신 분

민중을 위해 어버이 되시고
민중을 위해 장군도 되신 분
계급해방의 봄노래
인간자주의 봄노래를 햇빛으로 엮어
민중이 이고 살
운명의 푸른 하늘을 아득히 펼쳐주신 분

하여 그분 단상에 오르시는
역사의 순간
푸른 행성은 움씰!-- 흔들렸도다
온 인류를 품고
미래를 안고
새 세기의 하늘가를 바라보시는
영장이 지닌
무한대한 사상의 무게
담력의 무게
인덕의 무게로 하여

벅차도다
그분을 모시어
바로 그분을 민족의 영수로 추앙하여
겨레의 소원인 조국통일이
눈앞에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뺨에 흐르는 더운 것이여
반세기 응어리진
설움이 녹아내리는 것인가
벌써 빨라지는 통일의 마중이여

머리를 들어라 민중아
역사에 불멸할 화폭을 펼치는
삼천리 강토 위에 햇살이 내린다
김일성조국에
김정일세기의 새 장은 펼쳐져
불덩이를 안은 가슴들
눈굽이 젖어
가슴이 젖어
영광의 단상을 우러를제
태양의 모습으로 서계시며
환호에 답례하시는 손길에서
거룩한 빛발이 뿌려지도다

세기의 위인이시여!
새 세기 태양이시여!
진리로 깨끗하고 근로로 정직한
민중의 마음이
천년을 모시고 만년을 따를 마음
꽃 바다로 설레일 때

함성에 잠긴 삼천리강토는
맞추어진 파장으로 벌써 국경을 넘어
세계 속에 가득찬 내 조국은
그냥 온 세계인가
6대주 동서반구가 외친다

－인류의 구성 **김정일**장군 만세,
만세, 만만세!

새 세기 태양께 드리는
인류의 경하엔 국경이 따로 없도다

흠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열렬한 흠모의 정은 여러 나라 인민들로부터 그이께 보내어 온 감사전문과 감사편지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디디에 라찌라까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내어 온 감사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야불루아국가궁전 건설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던 조선기술자들이 자기의 사업을 끝마치고 귀국하게 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더 없는 만족감을 품고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선기술자들이 사업에서 발휘한 열성과 재능 그리고 그들의 높은 헌신성은 혁명성에서 온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형제적 조선인민의 숭고한 목적 실현에 진심으로 되는 지지를 표하면서 마다가스카르인민의 지지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합니다.≫

탄자니아 아루샤벽돌공장 지배인 하싸라바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내어 온 감사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각하께서는 탄자니아를 비롯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위하여 깊은 배려를 돌려주고 계시며 언제나 그들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각하께서는 유능한 기술자들을 보내시어 공장들을 건설하여주시고 공장운영을 적극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 공장을 조선탄자니아친선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하루빨리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우리 탄자니아인민의 새 사회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자니아 이링가주 무뤈디구역 키델례와사마을 당비서 엠. 비. 카베누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당신께서는 탄자니아와 같은 제3세계나라들을 도와주시면서 발전도상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조선농업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주심으로써 지난 날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당하던 우리 농촌이 매해 대 풍작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협동경리의 우월성이 나타나도록 마을의 관리운영에 힘을 집중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협동경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앙골라웃공장 부총지배인 마누엘 뗄레스 비에이라싼띠아구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내온 감사편지에는 아래와 같이 지적되어있다.

≪저는 조선의 벗들에게 각별한 친선의 정을 표합니다. 루안다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선의료단 성원들은 앙골라인민대중을 위하여 자기의 지혜를 다 바치고 있는 근면한 일꾼들입니다. … 저는 그들이 앙골라인민에게 매우 유익한 기여를 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페루전통의학연구소 소장 알프레도 울라노 알로르르는 감사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각하의 현명한 영도는 페루에서 혁명적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도 지도적 지침으로 됩니다. … 지난날에는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지혜에 대하여 깊이 알 수 없었으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동의학자대표단을 페루에 보내시어 동의학강의와 침구치료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는 조선인민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조선을 더 잘 알고 따라 배울 수 있도록 대표단을 파견하여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모잠비크해방인민군 음악학교 교장 레오나르도 빠스꾸알 마꽈꽈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주체조선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지구상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을 경탄시키고 있으며 승리에로 고무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조선음악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방조 밑에 모잠비크해방인민군은 우리의 예술을 혁명적 예술로 활짝 꽃피우고 있습니다. … 우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구국의 소리

≪조선일보≫, 또 빨간모자?

김영철 연세대 학생 - 구국전선 주체91, 2월 21일

요즘 ≪조선일보≫가 6.15공동선언을 음으로 양으로 헐뜯고 반민족적, 반통일적 여론몰이를 기도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

더욱이 이북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공연에 대해 비난하고 헐뜯는 글들을 마구 싣는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더욱 격앙된다.

≪조선일보≫구독거부자로서 ≪조선일보≫의 됨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해도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온 겨레는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있다.

평양에서 준비되고 있는 아리랑공연도 이런 취지에서 보다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 겨레가 한자리에 앉아 민족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을 배합한 훌륭한 예술작품을 관람하고 또 함께 이북의 명소들도 둘러보게 된다면 민족의 동질성을 깊이 느끼고 민족단합정신을 더욱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북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연준비에 힘을 넣고 관람의 문도 크게 열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훌륭하고 민족적인 것에 대해 지지하고 찬미하지는 못할망정 갖은 요설을 다 꾸며 헐뜯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온당치 못하다.

≪조선일보≫가 이북의 아리랑공연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 민중의 평양행을 가로막으며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에게 빨간모자를 씌우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이미 지난해 평양에서 있은 8.15통일대축제 때에도 그런 행태를 보여주었다.

≪조선일보≫는 아리랑공연에 대해 헐뜯기전에 민족 앞에 지은 자기의 반역적 죄행부터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신문의 사명과 의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선일보≫가 더이상 발행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신문 아닌 ≪신문≫, ≪조선일보≫는 즉각 폐간돼야

임맹호 현대중공업 노동자
구국전선 주체91, 2월 21일

요즘 ≪조선일보≫의 행태에서 또 한번 환멸을 느낀다.

어쩌면 이북의 아리랑공연에 대해 그렇게 악의에 차 헐뜯을 수 있을까.

내가 알기에는 이북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공연은 전통적인 민족예술과 현대예술을 잘 조화시킨 종합예술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북에서는 이번 공연준비에 많은 품을 들이고 우리는 물론 해외동포들과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구경할 수 있게끔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해 준다고 한다.

고전발레를 보겠다고 멀고 먼 로마에도 가는데 가까운 평양에서 민족의 향기가 풍기는 종합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것은 어찌보면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아리랑공연을 헐뜯고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이북의 공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민족반역적 근성에 있다.

외세에 빌붙고 아부하며 민족에게는 반역하고 배신하는 것이 ≪조선일보≫의 기질이다.

특히 통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북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언질을 꾸며내서라도 비틀고 뒤집어야 성차하는 ≪조선일보≫다. 까마귀에게서는 까욱 소리밖에 나올 수 없듯이 ≪조선일보≫에서는 민족단합에 도움이 되는 글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신문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나는 이런 민족반역매문지집단, 신문아닌 ≪신문≫을 즉각 폐간시킬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고 싶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21일

서울 모처에서 제6차 평양 **김정일**화전시회
꽃을 사랑하는 회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꽃을 사랑하는 회≫ 회원들이 모의 제6차 평양 **김정일**화전시회를 가졌습니다.

2월 16일 서울 시내모처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화초애호가들이 여러달동안 정성껏 키운 **김정일**화 60점이 전시되었습니다.

화초업자인 회장 김모씨는 전시회를 개막하면서 먼저 우리 이남의 화초업자들도 평양에서 거행되는 제6차 **김정일**화전시회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어 제6차 모의 평양 **김정일**화전시회를 이 땅에서 펼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화는 7천만 겨레와 함께 온 지구촌이 다 알고 있는 위인의 꽃이다. 우리들도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끓어오르는 경모의 한마음을 안고 이 꽃을 재배해왔다. 위인의 존함으로 불리는 **김정일**화를 창공에 높이 받들어 올린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이고 긍지이다. 나는 이 자긍심을 안고 이 땅에 **김정일**화가 만발하도록 하기 위해 화초업자로써의 양심을 다 바쳐가겠다.≫

부시방한반대투쟁

20일 서울에서는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투쟁이 하루종일 전개됐습니다.

전국민중연대와 전국연합 등 600여개 단체소속 회원 5000여명은 20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반미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집회에서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총련과 21세기진보학생연합 등 단체소속 대학생 1천여명은 한양대에서 부시방한반대청년학생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부시행정부가 정권내부적 문제해결을 위해 의도적인 대북강경론으로 한반도평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성조기를 불태우면서 반미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소속 회원 2000여명이 모여 쌀수입반대와 부시방한반대를 주장하는 민중대회를 가졌습니다.

재야단체회원 30여명도 20일 오후 시내에 있는 미국 보잉사의 지사를 항의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무기강매중단과 지사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문을 지사측에 전달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 맞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또 이날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은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옥상에 설치돼 있는 미국 보잉사의 대형광고간판을 점거하고 반미구호를 외치면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부시의 행각에는 미국의 전투기를 판매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서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연세대학생들은 미국대사관앞에서 부시의 행각을 반대하는 항의서한과 성명서를 뿌리며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이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회원 100여명은 청와대입구에서 부시의 행각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저들의 무기판매를 위해 강경정책을 일삼고 있다면서 부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미국의 전쟁의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안으로 진입하려다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미국대사관에 오물투척
재야인사 이성호

재야인사 이성호씨가 19일 미국대사관에 오물봉투를 던지며 항의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부시대통령은 주한미군 한강독극물방류에 대해 공식사과하라고 외치며 성명문 전문을 뿌렸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2월 26일까지 피해재발방지약속을 포함한 공식사과를 하지 않고 주범을 넘기지 않을 때에는 2차 징벌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강에 독극물을 상습적으로 방류한 주범을 즉시 재판장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며 부시정권은 테러와 다름없는 한강독극물방류에 대해 공식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배격받는 부시의 ≪악의 축≫망언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21일~22일

부시의 ≪악의 축≫망발은 날이 갈수록 우리 겨레는 말할 것도 없고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배격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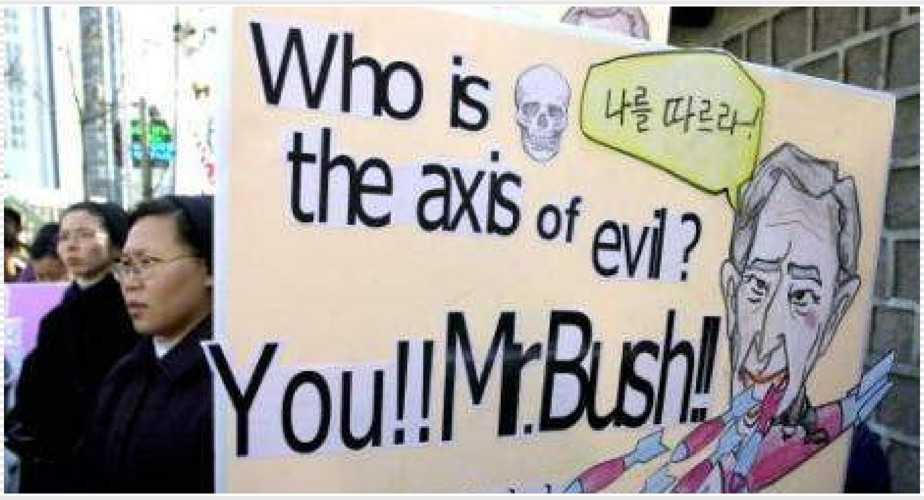
김현규씨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번 부시미국대통령의 한국행각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듯 터져나왔는데요. 그럼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얘기나눴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나라들은 부시의 ≪악의 축≫망언이 일방적인 강권과 독선주의로 일관되어 있으며 세계의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거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어느 한 나라가 독단으로 나서서는 대량살육무기문제와 테러의 근원문제를 비롯한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일방주의적 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독일총리는 반테러전쟁이 보다 큰 세계적 정의의 영향하에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외무성은 미국이 대테러전쟁을 확대하려는 의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고 특히 부시대통령이 이북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 대해 세계 장래를 미국 혼자서 이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영국 외무장관 등 유럽연합성원국 고위 인물들은 이북을 다음 타격대상으로 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명백한 증거가 있고 다른 방도가 없다고 확신



될때에만 군사행동으로 넘어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사무총장은 나토와 미국의 공동보조는 9.11사건에 관계된 대상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부시의 군사행동확대 시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사회자 : 미국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망언은 중국과 러시아, 쿠바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강한 반발과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김현규 :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부시의 망언을 반대한다, 지지할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기를 들고 있는데요. 러시아 외무상은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를 냉전의 잔재라고 했고 일본 방위청장관은 부시가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나는 이북이 이란이나 이라크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북은 그 어떤 테러그룹과도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쿠바정부는 성명을 발표해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한 부시의 망언은 이북의 군사적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력에 의한 위협은 현 미행정부의 수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사회자 : 부시의 ≪악의 축≫망언은 미국내에서도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그렇죠. 미국내 주요 언론과 이북 전문가들은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미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자 가쉘은 부시가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우방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반발을 불러올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회자 : 이렇게 부시의 ≪악의 축≫망언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배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시는 이번 한국행각에서 ≪악의 축≫망언을 취소하지 않고 북을 자극하는 호전적인 망발을 계속했습니다. 부시가 누구도 찬성하지 않고 어디서나 배격당하고 있는 ≪악의 축≫망언을 계속 불어대면서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다가는 국제사회의 더 큰 항의와 규탄을 받게 될겁니다.

각계 국민들도 대북강경발언을 연발하면서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부시를 비롯한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매일 매시각 악을 산출시키고 있는 나라는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거돼야할 악의 원흉이라고 할겁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21일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한미정상회담진행

부시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방한해 한미정상회담 등을 가지고 대북정책과 경제통상문제 등 한미간 현안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보도된 것처럼 부시는 한미정상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니 북을 침공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한반도평화가 자신의 목표라느니 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부시의 발언에 대해 내외여론들은 ≪악의 축≫발언에 대한 한국민의 분노와 우려를 무마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시는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북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북을 악랄하게 헐뜯고 대량살상무기문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시가 진정으로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 우선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분노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악의 축≫발언을 취소하고 사죄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시는 북을 ≪어둠의 세력≫이니 뭐니하며 악랄하게 비방하면서 북이 투명성을 갖추기 전에는 자신의 행각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떠들었습니다.

부시의 이같은 오만무례한 행위는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군사적 공격을 가하려는 그의 흉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조건없는 대화를 하겠다면서 대화상대방을 헐뜯고 대량살상무기문제를 걸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에 앞서 부시는 일본총리와의 회담에서 ≪악의 축≫으로 지목한 국가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테러전쟁에 일본의 지지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부시는 한미정상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은 물론 대테러전쟁 등 현안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사실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특히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공격을 가하려는 시도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시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느니 뭐니하며 북미대화재개를 운운하고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한 것은 자신의 전쟁행각을 ****고 우리 국민의 반미반전투쟁기운을 가라앉히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해보려는 계획의 **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호전광부시의 이같은 작태를 직시하고 이 땅에서 미국놈들을 내쫓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21일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 쌍방 대표단성원들과의 담화 10돐기념 보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고전적로작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자≫발표 10돐기념 평양시보고회가 20일 진행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81(1992)년 2월 20일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 참가하였던 쌍방 대표단성원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하신 력사적인 담화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를 보게 된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데서 하나의 리정표로 되는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은 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로작은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거둔 성과를 귀중히 여기고 더욱 공고히 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체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해 나갈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 준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온 겨레가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해 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민족분렬 55년만에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여 주신데 언급하고 이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 길이 빛날 대공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뜻 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 나가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가로 막는 온갖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힘차게 벌려 나가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은 민족 최대의 행운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리기석부의장은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실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일대 경사였으며 우리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기약해 준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으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정치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선군혁명령도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의 기풍이 차넘치는 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주체의 신념과 철의 의지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6.15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 주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뛰여난 정치실력과 령도풍모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이 받아 안은 최대의 행운이며 커다란 자랑이다.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그 어떤 광풍이 몰아 쳐 와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가겠다.

2월명절 여러 나라 경축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축하였다.

캄보쟈, 인디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슈, 로므니아, 리비아, 스위스, 벌가리아, 요르단, 에짚트 등 여러 나라에서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탄생일을 맞으시는 **김정일**령도자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시대의 탁월한 정치가, 국제사회의 위대한 정치원로로 칭송하면서 그이는 21세기의 태양이시라고 말하였다.

벌가리아, 베닌, 뻬루, 기네, 프랑스에서는 조선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와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이 진행되였다.

행사들에서는 독특한 선군정치와 인덕정치로 조선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시고 공화국을 세계사회주의의 보루로 튼튼히 다져놓으신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한편 지중해지역사회주의자조직 상설서기국은 성명을,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축하성명을 각각 발표하였고 벌가리아공산당(맑스주의자) 중앙위원회 집행리사회 위원장과 인디아 혁명적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각각 담화를 발표하였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제6호(특간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사진들과 고전적로작들, 시와 글들로 옹근 16면에 걸쳐 특집하였다.

미국방성 부장관의 ≪제1의 미싸일수출국≫발언은 근거 없는 날조설

조선중앙통신 론평

미행정부의 군사, 외교부문관계자들이 떨쳐 나서 부쉬의 ≪악의 축≫망발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때에 미국방성 부장관 울포위쯔가 또다시 우리를 걸고 들었다.

그는 18일 미일경영자협회모임에서 우리 나라가 ≪탄도미싸일과 그 기술을 파는 세계 제1위의 수출국≫이라고 떠벌임으로써 얼마전 미대통령국가 안보담당보좌관 라이스의 ≪세계최대탄도미싸일 수출국≫설에 맞장구를 치는 추태를 부렸다.

전혀 근거 없는 날조설을 내돌리는 울포위쯔의 행위는 우리 나라를 기어코 ≪악의 축≫에 얽어 매 놓고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미국의 호전적기도의 발로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제2의 랭전론인 미국의 ≪악의 축≫론은 지금 세계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에 바빠 맞은 미국의 호전분자들이 세계 사회계의 비난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나 무마시켜 보려고 지금 안깐힘을 다 쓰고 있다.

울포위쯔도 그 속에 한몫 끼워 그 무슨 ≪제1의 미싸일수출국≫, ≪미싸일위협≫등의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비렬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9.11테로≫이후 최첨단유도 무기체계인 ≪미싸일방위≫체계 수립을 강행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우리의 ≪미싸일위협≫에 대해 걸고 들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미싸일수출국≫의 모자를 씌우고 있다. 미국이 세계최대의 탄도미싸일 보유국이며 수출국으로서 현실적으로 전 인류를 대상으로 ≪미싸일위협≫을 하고 있다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방위를 위한 일부 나라들의 군사력을 문제 삼아 걸고 들며 압력을 가하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강도적행위이다.

미국의 군사적위협으로 하여 오늘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이 조선에서 기어코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들은 자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상대를 똑바로 알고 행동하라

민주조선

≪민주조선≫ 21일부는 미국대통령 부쉬가 지난 1월 30일 조선을 ≪악의 축≫이라고 걸고 든데 이어 최근 험담의 도수를 점점 더 높이고 라이스, 포웰 등 미행정부의 호전분자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시사한것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군사적압력과 공격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되여 있다.

만약 미국이 끝내 힘의 방법으로 조미관계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도 구태여 피할 생각이 없다. 미국이 우리에게 군사적도발을 가해 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직 하나의 선택, 침략자들에 대한 무자비하고 철저한 징벌로 그에 대답할것이다.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만장탄된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 쥐고 미국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침략은 곧 파멸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뛰여 드는 우둔한 짓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처신을 바로 해야 한다.

현 일본집권세력의 혁신정치는 위험한 전쟁정치

로동신문

≪로동신문≫ 21일부는 일본의 현 집권세력이 ≪개혁≫을 제창하면서 ≪혁신정치≫를 표방해 나선것은 일본정치무대에서 충격적인 파문을 일으켜 혼란된 정계를 수습하고 ≪군국주의 배≫를 더 힘있게 몰아 가려는데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당국자는 선행한 집권자들이 감히 선뜻 나서기 두려워 하였던 ≪야스구니진쟈≫를 공식참배하려는 립장을 거듭 밝히였으며 끝내 그것을 실현시켜 군국주의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평화헌법≫의 준수를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사고방식으로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였던 ≪평화헌법≫에 칼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 일본은 이미 첫 단계 군사작전에 나섰으며 그것을 통하여 ≪자위대≫ 군사행동범위를 더욱더 넓히려 하고 있다. 일본의 현 집권세력들은 적극적인 군사해외팽창의 출로를 미국과의 군사적동맹관계를 보다 강화하는데서 찾고 있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허울벗은 독사마냥 독을 풍기며 해외침략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다. 이것이 현 일본집권자들이 제창하는 ≪혁신정치≫의 진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 (2)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2월 20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는 백전백승의 령도방법과 령도예술의 참된 귀감이 마련되는 영광스러운 로정으로 되고 있다.

령도자가 지닌 걸출한 령도풍모는 혁명승리의 위력한 추동력이다. 위대한 령장의 령도의 손길아래서 군대가 필승의 위력을 떨치게 되며 인민이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나게 된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군대와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그것을 최대한 발동해 나가시는 혁명적령도예술의 최고귀감이다. 혁명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난관이 겹쌓일수록 대중속에 들어 가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분출시켜 기적을 창조해 나가시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일관한 령도원칙이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나날 석수 떨어 지는 막장에까지 들어 가시여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속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신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며 허리치는 생눈길을 헤치고 여러차례나 자강도를 찾으시여 로동계급을 강계정신의 창조자로 키우신분도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혁신의 봉화도 몸소 성강과 라남의 로동계급속에 들어 가시여 지펴 주시였다.

정력적인 현지지도로정에서 과시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령도풍모는 우리 혁명전사들이 따라 배워야 할 귀감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풍모에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묘술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변시키는 비상한 전개력도, 백번이면 백번 다 승리와 성공만을 가져다주는 방법론도 체득할수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풍모를 거울로 삼고 살며 투쟁해 나갈 때 우리에게 뚫고 나가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란 없으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는 놀라운 비약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는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따르는 위대한 혼연일체의 서사시가 펼쳐지는 빛나는 로정으로 되고 있다.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믿음과 사랑은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충성과 신뢰를 낳는 근본원천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는 군대와 인민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일관되여 있다. 군인들과 인민들을 찾으실 때마다 먼저 식당과 병실, 합숙부터 들리시여 식생활형편과 잠자리부터 알아 보시고 마음 쓰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는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인민에 대한 끝 없는 사랑의 길에서 녀성해안포병과 약크림과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도 생겨 나고 대홍단에 뿌리 내린 제대군인들의 삶을 빛내여 주는것과 같은 감동 깊은 사실도 생겨 났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야말로 령도자와 인민의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뉴대가 더욱 두터워 지고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꽃 펴나는 자랑스러운 로정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자기들의 초소와 일터에 모시는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자나깨나 그리던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신 현지지도단위의 인민들속에서는 장군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용암처럼 솟구치고 있다. 자기들의 기름 묻은 손도 허물없이 잡아 주시고 스스럼없이 올리는 소박한 말도 다정히 들어 주시며 끝 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은덕에 끝까지 보답하며 장군님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릴 일념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이 우리 인민들의 한결 같은 지향으로 되고 있다.

끊임없이 이어 지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현지지도의 갈피갈피마다에는 사상의지와 감정과 정서, 투쟁방식에서 령도자와 혁명전사들이 완전한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비껴 있다. 이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천하대적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 쳐와도 끄떡 없다.

우리는 뜻 깊은 올해를 우리 민족사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한 오늘의 총 진군에서 위대한 선군령장의 불멸의 현지지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우리는 현지지도업적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령도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혁명전사들이 발휘하는 높은 충성심과 혁명성의 바탕에는 령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끝 없는 숭배의 마음이 놓여 있다. 우리가 간직하여야 할 수령숭배심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령도풍모에 대한 끝 없는 매혹이며 그것을 온몸으로 체득하려는 숭고한 열망이며 한생을 장군님을 닮은 충직한 전사로 살려는 드팀 없는 의지이다.

모든 군인들과 인민들은 선군시대의 가장 위력한 령도방식인 불멸의 현지지도로 위대한 전변의 새 력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가장 걸출한 령도의 거장을 어버이로, 스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 천만리길에서 보여 주신 령도의 귀감을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따라 배워야 한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세련된 령도 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 이것이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녀야 할 신념의 근본핵이다. 누구나 다 현지지도의 길에 어려 있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출위인상을 깊이 체득하며 우리에게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드팀 없는 마음의 기둥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단위들이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서 전위대, 기수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자기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을 실천적성과로 빛내여 나가는것은 혁명전사의 첫째가는 본분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열렬한 수령숭배심과 결사옹위정신도 이 투쟁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여야 한다.

모든 현지지도단위들에서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신 현지지도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이 산 현실로 꽃 펴나게 하여야 한다. 생산과 건설에서도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기업관리와 후방사업에서도 현지지도단위들이 마땅히 앞장 서야 한다. 새 세기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고 있는 라남로동계급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본보기를 창조하고 있다. 라남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어떻게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 준 선군시대의 기수, 전위투사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라남의 로동계급처럼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실천적성과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중요전선을 맡고 있는 모든 현지지도단위들이 시대의 기수, 전위대가 되여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내달릴 때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자랑찬 승리가 이룩되게 될것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현지지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데서 본보기는 인민군대이다.

인민군대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가장 력력히 아로새겨 져 있다. 인민군대에서는 우리 혁명무력을 일당백의 무적의 강군으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키우신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모든 장병들이 자기의 뼈와 살로, 신념으로 간직하고 빛내여 나가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군인들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서 자라난 최고사령관의 근위대답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군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는데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인민의 거울이 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깃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사적에 대하여 잘 알고 그것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 들어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 누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에서 제시하신 방침과 과업들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거기에서 신심도 얻고 방법론도 찾아 내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현지지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 서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며 시범단위로 꾸려 준 단위들에서 창조한 귀중한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 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뜻 깊은 올해에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돌격전에서 새로운 더 큰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나가야 할것이다. (끝)

6.15북남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거는 미 호전분자들이 책동과 그 정체

≪특강≫ 미제호전세력들의 대조선강경압살책동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 제2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21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6.15북남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거는 미 호전분자들이 책동과 그 정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더 이상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과 남이 합의한 6.15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본질과 그 근본해결원칙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고 명백하게 밝힌 민족자주선언이고 통일지향선언이며 민족대단결선언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6.15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고 또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경우만 놓고봐도 북과 남, 해외의 여러 정당단체들과 각계각층 동포들이 평양과 금강산에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과 북남노동자 5.1절 통일대회, 북남농민통일대회를 비롯한 공동의 통일축전과 행사들을 성대히 치뤘습니다. 이것은 6.15북남공동선언이 거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6.15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사업은 미 호전계층의 횡포한 도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지금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전진하는 우리겨레의 자주통일 진군을 멈춰 세워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행정부가 6.15북남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어떻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책동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유린하고 그 관철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본정신이야 말로 북남공동선언의 생명력을 담보하는 근본 핵으로, 그리고 공동선언의 모든 조항들을 성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담보로 됩니다. 그런데 미 호전분자들은 6.15북남공동선언의 이 기본정신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미 호전분자들이 북남공동선언에 기본정신을 유린한다는 것은 곧 이 선언 자체를 뒤집어엎으려고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유린하고 그 관철을 가로막고 있는 미 호전분자들의 책동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유린하고 그 관철을 가로막고 있는 미 호전분자들의 책동은 무엇보다도 북남사이의 모든 대화를 차단시키려고 하는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과 남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는데서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북남 최고위급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정당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어야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로부터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고 명실공히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남조선 당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북남 사이의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훼방을 놀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3월 7일 워싱턴에서는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부시는 남조선 당국자에게 ≪당신은 북조선을 잘못보고 있다.≫느니 ≪북조선을 믿을 수 없다.≫느니 또 ≪북의 핵개발과 미사일 문제에서는 불투명한 점이 많다. 클린턴 정권은 6년간 속아왔다. 우리 정권은 속지 않을 것이다.≫하면서 그가 제기한 문제들을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과 사전협의도 없이 6.15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고 시비질까지 했습니다.

특히 부시는 북남사이의 대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회담에서 두 가지를 강요해 나섰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에 쐐기를 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남관계발전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조절하고 북남사이 정치, 군사 협상은 물론 정부급단계의 지원을 포함한 모든 단계마다 미국과 협력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북남관계개선에로 나아가는 북남대화에 제동을 걸고 모든 것을 미국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하겠다는 부시의 지배주의적 속셈을 그대로 들어내 놓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부시는 그 후 북남사이의 모든 대화에 대해서 시비하고 간섭해 나서다 못해 나중에는 9.11사건을 계기로 남조선당국을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가게 하고 남조선에 미군 기동무력을 투입함으로써 북남사이의 대화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방해를 놓는 주범이 바로 부시행정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유린하고 그 관철을 가로막고 있는 미호전분자들의 책동은 다음으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를 놀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반세기 이상이나 서로 다른 정치제도, 경제제도에서 살아온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6.15공동선언에 밝혀진 데로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고 이 땅위에 통일되고 부강하는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우리 민족 내부문제인 협력교류사업에 끼여들어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놀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미국과 남조선 사이의 호상공조라는 주패장을 내들고 미국은 ≪상호주의와 검증을 원칙으로 북을 견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중단시키려 하는데 남조선이 북조선을 풀어주고 앞서나가면 공조가 되겠냐?≫ 라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을 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시행정부는 남조선이 북조선에 전기를 주면 핵사찰 카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된다느니 그리고 386컴퓨터도 여러 대 연결하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느니 또한 식량은 군량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느니 하면서 북남사이의 모든 경제협력에 돌아가며 빗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부시행정부는 이회창과 같은 우익보수세력들을 내세워서 대북퍼주기론이라는 것을 떠들어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조선의 우익보수세력들은 군 전력증강 5개년 계획기간에 무려 30조원의 혈세를 동족대결용 무기구입비로 미국의 군수산업체에 퍼넣기로 한 진짜 퍼주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북과 남, 우리겨레의 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할 통일투자를 퍼주기로 매도하면서 북남공조보다 미국-남조선 공조를 우선시하는 부시의 충견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부시행정부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진행되는 북남사이의 협력교류를 가로막기 위해 얼마나 못되게 책동하고 있는가를 잘알수 있습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유린하고 그 관철을 가로막는 미 호전분자들의 책동은 또한 북과 남 우리 겨레의 호상내왕을 차단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데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남내왕은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의 신뢰를 두터히 할 뿐아니라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시행정부는 북남사이의 협력교류 뿐 아니라 사람들의 내왕과 혈육간의 상봉까지 가로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남조선 인민들이 금강산관광을 하는 데 대해서 그 구경비가 북조선의 군사비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가로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의주 철도연결은 지뢰를 해제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북의 땅크들이 쳐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제동을 거는가 하면 북남사이의 내왕과 접촉은 조선반도의 그 무슨 민족주의 기류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국수주의를 제창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야 말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책동의 주범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거는 부시행정부의 이러한 책동의 정체가 무엇인가 다시말해서 그 책동의 기저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거는 부시행정부의 범죄적 책동의 정체는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 냉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기들을 대대적으로 팔아 심각한 불황에 처한 미국경제를 살려내자는 데 있습니다. 부시행정부가 출범해서부터 미국경제는 계속 하강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9.11사건 이후 미국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이로부터의 출로를 미 군수산업체들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는데서 찾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경제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군수산업 증대에서 찾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미국이 진행한 수많은 전쟁들을 분석해 보면 그 배경에는 예외 없이 경제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경제공황이나 불황에서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고 전쟁을 위해 군수산업의 투자를 늘리는 것은 미 제국주의의 생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경제사는 군수산업의 역사이며 미국경제에서 첫째가는 기둥은 군수산업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부시행정부가 심각한 불황에 빠진 미국경제를 살려내는 방도를 조선반도에 냉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기들을 대대적으로 팔아먹는데서 찾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시행정부가 이 목적을 실현하는데서 장애로 된다고 보는 것이 6.15공동선언입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길을 밝힌 역사적인 조국통일 이정표입니다. 6.15공동선언이 그대로 이행되어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미국으로써는 남조선에 군사장비를 팔아먹을 수 있는 명분도 그리고 미군무력을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킬 구실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부시행정부로서는 자기나라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해서나 6.15북남공동선언 이행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서는 이 선언 자체를 백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책동의 정체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책동의 정체는 다음으로 조선반도를 군사적 패권주의의 시험장으로 써먹으려는데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1세기의 세계 주요경제무대는 풍부한 자원과 방대한 인구, 광활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은 21세기의 정치, 경제, 군사, 기술 각 분야의

→ 12면으로 이어집니다

부시, 역사상 가장 환영받지 못한 방한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한국을 떠난 조지 W. 부시대통령의 방한은 역대 미국대통령의 방한 가운데 가장 ≪환영≫받지 못한 방한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아니였냐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국내에서 부시를 받는 분위기는 썰렁하다 못해 냉랭할 정도였다.

성조기와 플래카드 게양 금지

부시의 방한 기간중 서울 거리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미국 성조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과거 미국대통령이 방한할 때에는 길거리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내걸었었다. 이는 미국대통령이 올 때뿐 아니라 아프리카 같은 무명국가의 대통령이 올 때도 빠짐없이 행했던 환영 레파토리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서울시청이나 일부 관공서 건물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목격할 수 없었다. 성조기를 길거리에 내걸 경우 부시 방한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이를 손상시킬 위험이 크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이를 게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든간에, 부시대통령은 한국을 찾은 역대 미국대통령은 물론 전세계 수뇌부들 가운데 가장 초라한 대접을 받은 셈이 됐다. 성조기뿐 아니다. 그 흔한 환영 플래카드조차 목격되지 않았다.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여론조사 결과 전국민의 70%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성토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국민감정에 반하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도박을 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부시 숙소 근처, 철통 방어

워낙 반(反)부시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 당연히 길거리 환영인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과거에는 미대통령 방한때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환영인파가 동원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의 반부시 분위기가 워낙 강하다보니 가두행렬 등 일체의 공개행사가 마련되지 않았다. 기껏 한 것이 철통같은 보안 속에 청와대 구내에서 어린이들이 동원된 환영행사뿐이었다. 부시가 머문 미국대사관 관저 주위분위기도 살벌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미대통령의 숙소마저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보안상 이유≫에서였다. 부시대통령이 머물렀던 숙소는 서울 덕수궁 뒤편에 있는 미국대사관저였다.

이곳으로 통하는 길은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기 이전부터 개미 한마리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철통같이 봉쇄됐고, 21일 아침 일찌기 부시 대통령이 오산기지로 이동한 후에야 비로소 봉쇄가 해제됐다.

미 대사관, 여론조사 결과에 큰 충격

이같이 부시 대통령 방한이 유례없이 썰렁한 부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유중 하나는 미 대사관이 공개행사를 할 경우 보안에 자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대사관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한국민 70%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여론조사에 내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방한에 앞서 강남 코엑스의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사무실이 점거되는가 하면, 여의도의 보잉사 간판에 반미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시위강도가 남다른 대목에 크게 긴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방한기간중 일정을 보안 중심으로 짰고, 그 결과 역대대통령 방한과 비교할 때 가장 초라한 방한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부시는 방한에 앞서 일본에서는 메이지신궁에 고이즈미총리와 함께 참배해 일반인들과 만났는가 하면 국회연설을 했고, 중국 방문기간중에는 내년초 중국주석이 되는 후진타오 부총리와 함께 후진타오의 모교인 칭화대를 방문하기로 하는 등 공개행사 일정을 마련한 상태다.

과연 부시가 이처럼 차별적인 한국에서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향후 주목할 대목이다.

부시가 한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히 읽는 기회가 됐으면 더없이 바람직하겠으나, 20일 휴전선에 가서 부시가 ≪이북은 악으로 불릴 만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여전히 종전의 인식체계를 드러낸 대목을 본다면 그 어떤 희망적 기대를 갖기란 힘들어보인다.

박태견기자
프레시안 2002/02/21

부시가 불붙이고 솔트레이크가 기름붓고

반미감정 최고조로 끓어오르다

≪부시가 불 붙이고 솔트레이크가 기름붓는 꼴이다.≫

한 정부관계자가 22일 최근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반미감정의 근원을 분석하며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아마도 여론조사를 실시해보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한국의 반미감정이 요즘처럼 높아진 적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시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국민의 70%가 반감을 느꼈다면 이번 솔트레이크의 김동성 선수 금메달 박탈 사건으로 반미감정을 느낀 국민들은 최소한 80~90%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일보의 갈팡질팡

이처럼 최근 국내에서 반미감정이 급속히 높아지자, 당황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반미≫라는 초유의 광범위한 국민감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대표적 예가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22일자 가판의 2면네 다룬 만평에 대한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22일 아침 가정에 배달된 판에서 만평을 교체했다.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의 이같은 ≪갈팡질팡≫을 보고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극보수세력들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범국민적 반미감정에 얼마나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대미관계, 정치일정에도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듯

광범위한 반미감정 확산은 앞으로 대미관계 및 정치일정 등에도 중차대한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부시발언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70%나 된다는 여론조사는 뒤짚어 말하면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가장 적절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반증이자 국민들이 햇볕정책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발언으로 앞으로 대선과정에 불가피하게 한반도 정책이 주요쟁점중 하나로 부각되게 됐으며 그 결과 ≪전쟁≫과 ≪평화≫로 양분되는 정책적 대립전선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부시정부와 대북정책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회창총재측은 적잖이 고전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부시방문과 솔트레이크파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미감정의 여파로 앞으로 F15K로 대표되는 미국 군수품을 구입하는 협상 등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며 ≪국민감정이 이런 마당에 정부가 F15K등을 선뜻 구입하기 쉽겠냐≫고 반문했다.

박태견기자
프레시안 2002/02/22

➔11면에서 이어집니다

활동의 중심지로 되는 동북아시아입니다. 이로부터 세계 주요대국들은 이 지역의 주도권쟁탈을 위한 각축전을 맹렬하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국들의 이러한 각축전이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선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관련됩니다.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조선은 세계 가운데서도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활동적인 지역의 하나인 동북아시아의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조선반도는 해양세력에게 있어서는 대륙에로의 관문으로, 그리고 대륙세력에 있어서는 해양으로의 출구로 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조선반도는 21세기 세계정치의 초점으로 되고있습니다.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주도권 쟁탈에서 제일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유일 초대국의 군사적 우위를 무기로 조선반도라는 교두보를 타고 앉아 다른 대국들의 통로에 차단봉을 내리고 동북아시아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서 저들에게 주되는 장애로 된다고 보는 것은 우리 공화국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이 미국과 가장 강경히 맞서는 반미국가이고 미국의 운명적인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군사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 패권주의로 세계제패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주공전선으로, 시험장으로 써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시행정부가 획책하고 있는 것이 바로 6.15북남공동선언의 이행을 파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6.15북남공동선언이 민족자주통일선언, 평화통일선언이어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전략을 저지파탄 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안전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로부터 부시행정부는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기 위해서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6.15북남공동선언이 어떤 선언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은 세계가 공인하는 탁월한 정치가이시며 천하무적의 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민족애와 도량에 의해서 마련된 선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이 선언에 도전해 나선다면 조선민족 앞에, 역사 앞에 천추의 용납 못 할 대죄를 짓는 것으로 됩니다. 부시행정부는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기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못되게 노는 경우 어떤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찰 폭력진압에 시민단체 집단 고소

지난 20일, 종묘 공원에서 열린 범국민대회를 비롯, 부시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행사 도중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시민 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친다.

특히, 이 집회들은 합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도중 갑작스런 경찰들의 침입으로 많은 부상자를 낳아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에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민중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청을 방문,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앞서 경찰측의 저지로 10여분 동안 실랑이를 벌인 이들은,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오경숙 상임대표만 경찰청을 방문했지만, 경찰측은 경찰청장이 없다는 이유 등을 대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분명히 경찰청장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왔으나 없다고 한다. 이후 면담을 통해 이를 전달하고, 즉각 적인 법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 사례를 모아 집단적 고소 · 고발, 민사 소송, 국가인권위 제소 등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숙임 공동대표는 ≪종묘 집회 도중 갑자기 들어 온 경찰의 폭력에 의해 이 김현숙 대표가 50바늘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이것은 평화를 원하는 이들이 평화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권리를 박탈하고 나서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전한 후 ≪≪민주≫ 경찰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미상공회의소를 점거한 한총련 소속을 비롯한 32명의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져 이에 대한 이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 가 촬영한 동영상은 점거 당시 ≪직원들을 30분간 감금, 테미 오버비 소장을 납치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방해로 실패했다≫는 내용을 담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 영장과 다름을 뒷받침해 줬다.

특히 오버비 소장은 지난 18일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약간의 몸싸움은 있었지만 별다른 위협을 느끼진 않았다≫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실(고려대 4)씨는 ≪확실한 증거 없이 내린 구속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 한국 대학생 ≪테러리스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문에 반대해 미국 상공회의소를 점거한 한국 대학생들을 미국이 ≪테러리스트≫로 지칭한 것으로 22일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이날 ≪한국 대학생들은 테러리스트≫란 제목의 10면 하단 박스기사에서 ≪워싱턴은 어제 부시 대통령의 서울 방문에 반대, 주한 상공회의소 사무실 점거 농성을 벌인 한국 대학생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서 이같은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코메르산트는 이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회관 45층 주한 상의 사무실에 기습적으로 침입, 부시 방한 반대 시위를 벌이다 32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이번 반미 시위에는 한국내 600여개 사회단체 회원 5천여명이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봉준특파원
연합뉴스 2002/02/22

≪새해맞이 남북모임≫ 선발대 방북

오는 26~28일 금강산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민간 차원의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 준비를 위한 남쪽 선발대(단장 조성우 민화협 집행위원장) 8명이 22일 금강산관광선 설봉호편으로 떠났다.

정부 관계자는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준비위 선발대 8명의 방북을 승인했다≫며 ≪공동행사 남쪽 대표단에 대해서도 일부 불허 대상자를 걸러낸 뒤 이르면 23일 오후께부터 방북 승인 통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에서는 북쪽이 남쪽 민간단체의 반미 분위기를 자극해 반미 연대의 공동대응을 주장할 경우, 다시 ≪남남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방북 반대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해맞이 공동행사는 남북 민간단체의 합의대로 26~28일 금강산려관에서 열리게 됐다.

정부는 준비위 선발대가 행사장인 금강산려관 난방을 위해 256kW급 발전기 두대와 중유 30kℓ(모두 1억6천만원 어치)에 대해 낸 반출 신청도 승인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수유리 통일교육원에서 이뤄진 방북교육 과정에서 방북 신청자 377명(기자단 28명 포함) 전원에 대해 방북기간 중 일체의 정치적 주장 · 논의 ·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방북교육 불참자와 확약서 미제출자는 모두 불허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제훈기자
한겨레 2002/02/22

신군부, 녹화사업 집권전 계획

지난 83년 보안사의 녹화사업과정에 희생된 이윤성

지난 80년대 초 운동권 학생들의 프락치 활용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녹화사업≫은 신군부가 집권 이전부터 계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일 ≪국방부가 지난 88년 국회 5공특위에 제출한 자료와 계엄사 관련자료 등에 따르면 신군부는 80년 1월 계엄사령부내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정치.사회.학원 등 8개 분야에 대해 정책사항을 마련했으며 이중 학원대책과 관련, ≪문제 학생은 구속. 입영 조처하라≫는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들 자료에는 ≪문제 학생의 급격한 입대 증가로 군내 의식화관련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신군부가 강제징집된 학생들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녹화사업≫을 계획했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녹화사업의 사전시험 단계로 당시 보안사는 82년 9~12월 강제 징집학생 32명을 대상으로 1주일에 걸쳐 특별 정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2002/02/20

의문사 진상규명도 역사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중차대한 의미

이른바 녹화사업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증언이 관계당사자로부터 나와 주목된다.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을 지냈던 증언자는 ≪82년 청와대 만찬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입대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내게 ≪뭐하는 거냐≫며 질책하는 것을 듣고, 보안사가 정훈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측에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증언은 녹화사업의 입안 당사자가 털어놓은 것이어서 앞으로 전두환씨의 개입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도 하루빨리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유가족과 규명위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정치권의 주관심사인 권력형 비리척결만큼이나 의문사 진상규명도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윤태식 게이트≫를 계기로 다시 한번 제기됐듯이 국가 공권력까지 동원한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연합뉴스 2002/02/20

당과 민주노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76호(2.22 ~ 2.28)

지난 15, 16일 경기도 노동교육원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합동 간부수련회가 열띤 분위기 속에서 1박2일간 진행됐다.

당의 요구로 이뤄진 이날 수련회는 당과 노조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올해 있을 양대 선거와 대중 투쟁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당에서는 권영길 대표를 비롯 주요 지도부와 간부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허영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연맹 지역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했다.

15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50분까지 6시간 30여분간의 마라톤 토론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간혹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오종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이 토론 중간에 ≪당 사업에 민주노총 핵심간부들이 너무 모른다≫며 ≪민주노동당 간부들과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부분에서 나타나듯 당과 민주노총간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원활하지 못했음이 확인된 자리이기도 했다.

오후 7시 30분경, 민주노동당 현황보고와 민주노총 조직현황 및 2월 투쟁안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토론이 시작됐다.

사회를 맡은 김태일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재창당 문제가 성과 없이 끝나게 되고 대선도 성과가 없을 경우 더 절망하게 돼 당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간부들은 지난 6일 열린 중앙위에서 ≪재창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범진보진영의 양대선거 공동대응에 집중한다≫는 결정은 결국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없는 재창당 사업보다는 코앞에 닥친 양대선거 공동대응에 당의 무게중심이 실린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대선거를 앞두고 재창당이라는 말을 써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라리 올해 안으로 재창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양대선거에 집중하자고 강조하면 조합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탁 사무금융연맹 위원장도 재창당을 중단하고 선거에만 집중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거에 확실하게 치중하자는 것이 민주노총 간부들의 의견이었고 민주노동당 박홍순 기획위원장은 ≪재창당이란 선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선거와 재창당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후 논의는 민주노동당 재창당추진위에서 제출해 전국집행위에서 한번 토론을 거친 후 7차 전국집행위에 다시 상정될 예정인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이어졌다.

재창당추진위는 범국민추진위가 진보진영의 단결을 꾀할 수 있고 특히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농이 범국민추진위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재창당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국민추진위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노회찬 부대표는 ≪1만원을 내고 10만명의 범국민추진위를 구성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는 발상이고 1만원을 낸 사람은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에 투표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단일후보가 유력한 상황인데 투표권을 주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간부들도 ≪당내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민주노총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냐≫며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재창당의 핵심이 전농과 사회당인데 6개 조직 수련회에 사회당이 배제된 까닭에 대해 물으며 범국민추진위도 6개 조직 수련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과연 사회당이 범국민추진위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표명했다.

노부대표는 ≪(사회당을 일부러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은)분명 오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선과 재창당을 위해 (사회당과 통합)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범국민추진위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간부들은 토론회 말미에서 재창당과 외연확대의 실질적 주역은 민주노총 조합원임을 공유하고 이 부분을 조직화하는데 힘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직무대행은 지난해 연말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동당 당지지율이 23.1%, 한나라당 12.1%, 민주당 7.9%, 사회당 0.1%, 지지정당 없음 54.5%가 나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대표의 10만킬로 대장정도 좋았지만 민주노총 사업장을 다니면서 조합원을 당원으로 조직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당대표가 민주노총 지도부, 단위 노조 위원장과 긴밀하게 결합해 당원가입 원서를 들고 지역을 돌며 매달 성과를 발표하는 구체성이 있는 사업이 필요할 때≫라고 역설했다.

권대표는 ≪재창당 사업은 민주노총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수련회는 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허직무대행이 언급한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순회에 대해 ≪국민승리 21시절에 가입원서를 들고 다니며 3천명 회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올해는 민주노총 사업장을 다니며 조합원의 당원조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대표는 또 ≪민주노총 투쟁에 당이 깃발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에 맞는 정치적 투쟁을 잘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이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 간부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었다.≫라며 민주노총을 보완할 수 있는 정치적 투쟁을 당이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민주노총 간부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논의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노동조합의 지방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민주노동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배정방안 등은 시간관계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자제한법 부활 민생국회촉구집회

민주노동당, 22일 여의도

1. 민주노동당은 고리대금업 규제 및 이자제한법 부활 등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국회 대정부질문을 대권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여야의 무책임한 ≪말장난≫으로 국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 민의를 저버린 배신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규탄한다.

2. 특히 고리사채업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라는 요구가 1년내내 제기되었음에도 국회 재경위가 이를 묵살하고 고리대금업자의 폭리를 합법화하는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지난 15일 통과시킨 상태다.

3. 이에 민주노동당은 참여연대, 신용사회구현 시민연대와 함께 2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이자제한법 부활 민생국회 촉구 집회≫ 를 갖고 민의를 저버린 국회의원을 규탄한다.

4. 신장식 민주노동당 이자제한법 추진위원장은 ≪여야의 정략적 정쟁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극에 달아 국회해산을 촉구할 지경≫이라며 ≪여야는 정략적 정쟁을 멈추고 이자제한법 부활 등 민생을 챙기는 데 목숨을 걸 것을 촉구≫한다.

5. 여야의 정쟁으로 민생입법이 철저히 짓밟히는 장면을 권투싸움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로 진행한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집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싸움이 계속된다면 전당적으로 지역구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소환파면운동을 심각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계획≫

20차 민주노동당 월례집회, 4차 시민대회

*일시 : 23일(토) 오후3시
*장소 : 용산미군기지 1번 게이트 앞

민주노동당

2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

중소영세, 비정규직 차별없는 주5일근무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2월 24일 여의도 공원에서 있습니다.

*13:00 공덕동 로터리 집결
->> 여의도 공원 ->> 국회앞

민주노동당

사월혁명회, 2기 민족학교 개강

21일 오후 7시 사월혁명회는 2기 민족학교 개강식을 갖고 첫 번째 강좌를 진행했다.

황건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에게 민족주의는 반제국주의, 반세계화, 반외세의 논리≫라고 정의하고 ≪80년대 이후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민중은 다국적 기업의 직접적 착취아래 놓이게 되었다≫며 ≪민족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민족학교를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민족학교 학생들은 이날 개강식과 첫 번째 강의에 이어 민족문제와 노동, 농민, 언론, 진보정당에 관한 주제 등을 김금수, 정현찬, 성유보, 천영세 등 각계의 중견 인사들을 통해 배우게 된다.

사월혁명회가 개설한 민족학교는 작년 10월 25일 개강해 15회의 강좌를 갖고 12월 20일 수강생 30명 전원이 졸업하여 화제를 낳기도 했다.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5)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5월말 발표

1.우리는 왜 이 글을 긴급토론자료로 제출하는가

2.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3.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과 조직문제

4.반제자주역량의 미군 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5.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철폐 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6.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7.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의 관계문제

8.제안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6. 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1

지난 1월에 북측은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의 기간을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7천만 민족 앞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북측이 조국통일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민족통일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북측에서는 조선반도의 통일을 말할 때 민족통일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언제나 조국통일이라는 개념을 쓴다. 그러므로 북측이 말하는 ≪민족통일촉진≫은 민족의 통일을 촉진한다는 뜻이 아니라 민족통일전선을 촉진한다는 개념이며,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이라는 개념은 민족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촉진하는 기간이라는 뜻이다.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예전처럼 남과 북(북과 남), 해외가 모여 통일행사만을 진행하자는 뜻이 아니라 폭넓은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자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려면 우선 통일전선전략 전반에 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된다.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일전선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남측에서 구축되는 지역통일전선이다.

첫째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에 관하여 살펴보자.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줄여서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1980년대의 통일전선전략이론에서는 이것을 ≪남북(북남) 통일전선≫이라고 불렀다.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한다는 말은 다양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이 사상, 이념,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찾아내고 이를 추구하기 위하여 결집한다는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따르는 사회운동세력이 조직적으로 결합한 전선이지만, 민족통일전선은 그 3대 강령에 따라 결집되는 전선이 아니다.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조선민족의 민족통일전선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이 사상, 이념,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집하는 전선이다.

우리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을 반국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전국적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 조선민족의 민족통일전선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하는 것이므로 그 중심은 북측의 정치역량이 된다.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의 구축은 북측의 정치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남측과 해외의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북측의 정치역량은 평양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김대중정권을 포괄하는 민족통일전선이 실현가능한 것임을 입증하였으며, 지금 그러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민족통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이

→

광고

6.15주간

35호 (주체91, 2/15~2/21)

3 주석님 노작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완전자주독립을 위하여

특집 - 부쉬야 손떼라

한국민족민주전선
35 21세기 태양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37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시킨 부시행정부의 죄악백서

청년주체주의자대오
41 21세기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42 주체 91년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10대 맹약

6.15공동선언실현
46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
48 새해맞이 행사 26-28일로 확정

주한미군철수
50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기자회견 가져

반통일세력단죄규탄
52 민족의 역적을 기어이 매장하자
53 반이회창투쟁과 국민의 자세

국보법철폐 국정원해체
57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민중연대
58 김대중정권은 전국연합 정광훈 공동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60 대중참여 후보 단일화 사례

61 연단 6.15공동선언은 이행돼야한다

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수립될 ≪민족통일기구≫는 바로 이 민족통일전선이 남북(북남) 정부의 정치적 의사와 요구, 그리고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각이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의사와 요구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지위와 권능을 가진 정치기구로 조직화된 실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의 목표는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여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바탕은 무엇인가? 그것은 6.15공동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을 지지・찬동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이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결집된 새로운 전선이 민족통일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북측의 정치역량이 민족분열세력의 방해책동을 꺾고 승리한 결과로 6.15공동선언이 성립된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제국주의의 조선반도 지배정책이 낳아놓은 산물이라고 보는 착오나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성립된 것으로 보는 착오는 모두 버려야 한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남북(북남) 정부당국 사이에서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은 일단 돌파구가 열렸다. 그러나 남측의 정부만이 아니라 정당, 사회단체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은 아직 돌파구를 열지 못했다. 그렇게 된 것은 남측 정부당국이 방해・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측 정부당국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된 것이 마치 자기들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가능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통제범위 밖으로 벗어나서 남북(북남)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을 ≪범죄적 일탈행위≫로 규정하면서 짓누르고 있다. 남측 정부당국은 남북(북남) 정당, 사회단체들 사이의 교류는 허용하지만 민족통일전선 구축사업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다. 남측 정부당국은 교류는 자기들의 ≪대북 포용정책≫을 실현하는 방도인 반면, 민족통일전선 구축은 북측의 대남정책을 실현하는 방도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남북(북남) 정당, 사회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평가절하하거나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교류 자체를 금압했던 6.15공동선언 이전의 상황에서는 남북(북남)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 자체가 의의를 가졌지만, 6.15공동선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누가 무엇을 위하여 교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북(북남)교류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대북 포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북(북남)교류를 추진하느냐가 선택적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북측의 정치역량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남 교류를 추진하면 그것은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교류가 된다. 북측의 정치역량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북남)교류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유리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로, 남측에서 구축되는 통일전선에 대하여 살펴보자. 남측의 통일전선에는 두 종류가 있다.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과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이 그것이다.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을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부르고,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먼저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민족민주전선)에 대하여 알아보자.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의 3대 강령을 최고의 높이에서 실현하게 되면 그것이 곧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National Liberation Democratic Revolution)이다. (이 글에서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이 아니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DR)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이러한 개념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서술하겠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은 종국적으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남측에서 민족민주전선의 초기 형태의 조직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생겨나기 이전인 1980년대에 정립된 통일전선전략에서는 남측 지역 통일전선을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파시스트 정권 하에서 정립되었던 남측 지역에서의 통일전선전략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을 해명하였다. 이미 1960년대부터 40여 년 동안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투쟁해오고 있는 각양각색의 민족민주전선은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통일전선이다. 그렇지만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불과 10년의 연륜밖에 갖지 못한 청소한 운동력이므로 다른 나라의 민족민주전선들처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할 만한 사상적・조직적 준비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아직 혁명운동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3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선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물론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자기의 역량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장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남측에서 민족민주전선의 초기 형태의 조직이 생겨난 이후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리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지금 우리는 통일전선전략이론을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해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통일전선전략을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측 지역의 통일전선을 말한다. 이것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일부분이다.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이 구축되어야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측 지역의 통일전선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주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지역통일전선이다.

(내일 계속됩니다)

하나 민족도 나 —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 방식에 관한 논의

나와 주체사상과의 대화

나: 조국통일 3대헌장에서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방식문제를 놓고도 이남의 ML론자들은 부당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민중의 올바른 인식을 흐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그렇습니다. 이남의 ML론자들은 전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할 데 대한 이론을 개량주의적인 것으로 매도하며 연방제통일방식은 북의 사회주의 역량으로 남의 민주역량을 흡수하는 논리라고 왜곡하여 시비하고 있습니다.

나: 먼저 민족대단결에 관한 주체적 견해와 그 정당성에 대하여 요약해보았으면 합니다.

주: 민족대단결에 관한 사상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1993년 4월 6일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총적 목표와 이념적 기초, 민족대단결의 가장 올바른 원칙과 합리적인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총적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구성원들의 공동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전민족에게 복무하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설하는 것이며 범민족통일국가는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특성과 민족사의 쓰라린 교훈에 기초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블록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민족대단결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과학적인 정식화를 주었습니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남에게 예속되면 민족구성원들도 망국노의 처지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민족애와 자주정신은 사상과 정견, 당파와 소속, 재산의 유무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민족이 단결할 수 있게 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됩니다.

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는 또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민족대단결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였으며 민족대단결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의 중지,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는 것,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 접촉과 내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 등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통일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통일위업을 가장 빨리 앞당길 수 있게 하는 독창적이고 정당한 정치 강령입니다.